



GILLETTE 부르고뉴 — 제1막

부르고뉴 — 프랑스
제1막 — 두 번째 삶의 농가

이야기는 결코 같지 않다. 이야기가 만나는 순간들이 결코 같지 않기 때문이다. 장소가 바뀐다. 계절이 바뀐다. 사람이 바뀐다. 그리고 여자들이 그 길을 가로지를 때, 예측은 모든 가치를 잃는다.

나는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했다. 오늘 나는 더 큰 강렬함으로, 거의 나 자신과의 대화처럼 다시 들려주고 싶다—기억에서 걸려 오는 전화, 시간의 문을 계속 두드리며 지나간 것뿐 아니라 어쩌면 아직 올 수도 있는 것까지 일깨우는 목소리.

제1막 — 두 번째 삶의 농가

20년 전, 나는 오래된 농가를 사려는 생각으로 프랑스의 심장부 부르고뉴로 떠났다.

그곳은 와인과 치즈, 그리고 프랑스인들이 유산처럼 지키는 절제된 우아함의 땅이었다. 나는 거래를 맡은 그 지역 부동산 중개인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그 부동산을 드문 기회라고 소개했고, 조건은 내 호기심을 끌 만큼 매력적이었다.

나는 한 번도 싼 물건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었던 적이 없다. 싼 물건은 인간의 발명품이다. 진짜 기회는 섭리에 속한다.

그 지역은 주요 상업 경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방문객들은 주로 8월과 9월의 포도 수확철이나 햇와인을 기리는 지역 축제 때 찾아왔다. 나머지 기간에는 언덕과 들판을 침묵이 다스렸다.

농가는 상태가 아주 좋았다. 약간의 보수, 몇 가지 구조 조정, 그리고 1층에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가 필요했다. 특별히 힘든 일은 없었다.

그러나 중개인은 서두르는 듯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고, 말을 타고 빨리 영지를 둘러보라고 제안했다.

12헥타르.

지평선까지 뻗은 포도밭.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샴페인.

서쪽의 작은 호수.

줄지어 선 아카시아 나무.

기존의 포도 판매 계약.

영지를 가로질러 말을 달리며, 나는 왜 주인들이 파는지 물었다.

그의 대답은 단순하고 처참했다.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남은 세월을 이 영지에 묶여 보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할 수 있을 때 아내를 데리고 세계를 돌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구간으로 돌아오자, 나는 멋진 어린 아라비아 말 여덟 마리를 보았다.

나는 부동산 전체의 가격을 물었다.

농가.

땅.

포도밭.

마구간.

말들.

그 남자는 망설였다.

말하기를 거의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 말했다.

“65만 유로입니다.”

나는 몇 초 동안 생각했다.

다음 날 우리는 공증인을 만났다.

나는 전액을 지불했다.

담보 대출 없이.

은행 없이.

용자 없이.

나는 부르고뉴에 있는 영지의 주인이 되었다.

포도 재배자.

농부.

심지어 시골 사람.

그리고 혼자 미소 지으며, 내가 개처럼 글을 쓴다고 주장했던 모든 사람이 마침내 나에게 딱 맞는 직업을 찾아 주었다고 생각했다.

Ferdinando